

목포권

목포 서해안고속도 종점~연산동 내리막길

‘과속 딱지’ 양산... 목포 이미지 먹칠

제한속도 90km→60km로 줄이고 매일 집중 단속

운전자들 “사고 위험 없는데 단속 왜 하나” 반발

목포 경찰이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직선 구간에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어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 경찰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인 무안~북항 방면 중점에서 연산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매일 집중적인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직선도로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곳이다.

특히 제한속도가 90km에서 60km로 변경돼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꼽히고 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간 상·하행선 구간에서 모두 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경찰이 인접 지역에서 집중적인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어 전형적인 ‘함정 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은 매일 오전 출근시간대부터 오후까지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90~100건, 많게는 160여건씩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이 곳은 목포의 관문이어서 외지 차량들이 대거 단속되고 있어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목포경찰은 시속 80km에서 시속 60km로 변경되는 영산강하구연 영암~목포구간 해수청 앞 외곽도로 상·하행선과 청호대교 광주방면 상행선 구간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관광객 이모(43·경기도 수원)씨는 “경찰이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운전자들이 겪는 혼란을 악용해 건수 위주의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이동식 단속시 전방에 예고 표지판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함정 단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유달산 개나리꽃 활짝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에 개나리꽃이 섰노란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한편 유달산 일대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3일간 봄맞이 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 어선 꿈작 마!

목포해경, 울머 50척 검거... 담보금도 10억원 징수

목포해경이 울머 5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신안군 거제도 남서 31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채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노영어 2622호(71t)를 나포하는 등 20일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

국어선 50척을 검거했다. 또 이에 따른 담보금도 현재 1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22억7천900만원의 45%선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 연

안의 환경오염 증가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현상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EEZ법 발효 첫 해인 2002년 86척(담보금 16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2004년 139척(9억9천750만원), 2005년 276척(16억650만원), 2007년 222척(22억7천9백만원)을 나포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신안 압해면에 대형 산불진화 헬기 배치

산림청소속 대형 산불진화 헬기(사진)가 지난 18일 신안군 압해면에 배치됐다. 신안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5월 15일) 동안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청

에 헬기 배치를 건의해 왔다. 산불진화 헬기 전진 배치로 산불 발생시 확산을 제외한 신안군 전역에 10분 내로 헬기 도착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해경 '원유유출 타르방제 사례집' 펴내

목포 해양경찰서(서장 강명길)가 최근 원유유출 타르방제 사례집을 펴냈다.

모두 3권으로 된 사례집에는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발생과 관련해 ▲오염방지 행정처리절차 ▲타르 유입과 방제상황 ▲각종 언론보도 사항 등이 실려 있다. 또 향후 유사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실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제 방안과 도시지역 방제과정 등을 수록했다.

이밖에 타르유입에서부터 응급방제까지 80일간 현장 상황을 사진과 결어려 상세한 설명도 첨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타르함유 폐기물의 효율적 방제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무안 갯벌 낙지잡이 활기

1점당 8만~12만원선

지선 어민 소득원으로

무안 갯벌낙지 잡이가 활기를 띠고 있다.

무안낙지(사진)는 한여름과 겨울철에는 적게 잡히나 봄·가을에는 어획량이 많아 지선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잡히고 있는 무안낙지는 1점(20미)당 8만~12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날씨가 포근해지는 4·5월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무안 지역에서는 지난해 740여 어가에서 갯벌낙지 590여을 생산해 145억원의 조소득을 올렸다.



무안군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과 함께 전용포장재, 아이스 팩, 항균 태백 포장 등을 개발해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무안해역에는 주꾸미 어장이 형성돼 1척당 30~40kg을 어획하고 있다.

주꾸미는 kg당 1만3천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갯벌낙지에 이어 새로운 어민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머드 화장품 개발 박차

신안군(주)현일 협약 체결

신안군이 갯벌을 이용한 새로운 머드(mud)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신안군은 24일 (주)현일(대표 이대훈)과 머드 화장품 사업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신안 갯벌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게르마늄, 알긴산 성분비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노화방지, 콜레스테롤 제거, 혈액순환 촉진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청정해역 신안 머드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거 중단했던 머드 화장품 개발사업에 다시 나섰다.

신안군 관계자는 “청정지역 이미지 확대 및 세수증대와 더불어 협약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흑산홍어 가격 폭락 어민들 울상

어획량 급증에 저가 외국산 수입도 늘어

흑산 홍어가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8kg짜리 홍어 상품 한마리 가격은 31만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만원 이상 폭락했고 7kg이하는 13만원~22만원 정도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처럼 흑산 홍어 가격이 폭락한 것은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증가한데다가 저가의 외국산 홍어 수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흑산 홍어 소

비가 부진해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기름값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적자 출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시철조업이 이뤄지는 홍어 굽어까지 겹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흑산홍어는 9척의 홍어잡이 배가 연간 140여을 잡아 50여여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It lists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for the '광주일보' (Gwangju Ilbo) newspaper.

“새 얼굴” “새 소득품종 발굴·자율관리어업 정착”

이항복 농수산부 목포수산사무소장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산가족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이항복(50) 농수산식품부 목포수산사무소장은 “새로운 소득품종을 발굴해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자율관리 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도 출신인 이 소장은 안도

수산고등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과를 졸업하고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해양환경공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강진해양수산사무소장과 목포해수청 수산관리과장을 지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and Mokp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Gwangju and Mokp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공인중개사' (Daegi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Gwangju and Mokp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i Plus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Gwangju and Mokp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Jido Real Estate) listing various maps for sale.